

김관영 “50조 투자·대기업 15개 유치”

〈무소속 전북지사 예비후보〉

제1호 정책공약 발표
“27조 투자유치 넘어
전북 성공신화 확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4년간 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신규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제1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27조 투자유치의 기록을 넘어 전북 성공신화를 더 크게 확장하겠다”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9기에는 전북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한 전북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K-인시티브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제 중심국으로 이끌고 있다”며 “전북 역시 기업과 자본, 기술,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북 인시티브’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8기 동안의 투자유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4년 전 제1호 공약으로 대기업 5개 유치를 약속했는데, 취임 2년 만에 이를 달성했고 임기 중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김관영 도정 4년 동안 총 27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는 민선 7기 4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S, 두산, 현대 로템 등 대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한 점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와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제1호 정책공약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북 산업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2월 체결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협약을 전북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날 김 예비후보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50조원 추가 투자유치 △대기업 15개 신규 유치를 공식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피지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차와 농기계·건설기계 분야의 산업 전환을 추진해 전북을 ‘피지컬 AI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와 연계한 협력기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첨단 복합소재 중심의 방위산업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통해 전주를 금융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KB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자주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전주 집적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의 금융기업의 전주 러시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를 더욱 확대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북을 ‘하이퍼 창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국 연구자, 세계 로봇 기술의 중심에”

민주 정동영 의원, 피지컬 AI 신기술 전략포럼서
조규진 교수, IEEE 로봇자동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포럼에서 “국산 로봇 산업 보호·육성 입법 시급”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이 국내 로봇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K-로봇 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 연구자, 세계 로봇 기술의 중심에”라고 지적한 뒤, “국산 로봇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와 상용화 지연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주시현 현대차그룹 실장은 “로봇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 언어·음성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술 고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로봇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재 대표는 “사람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다크 팩토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선점할 기회가 있다”며 자동차 공장 수출 전략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대표는 의료로봇 상용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송준봉 부사장은 로봇 제조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솔루션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하인현 대표는 숙련공 기술 데이터화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으며, 김민표 대표는 “로봇이 가전제품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당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유용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O만호기자

“완주 대전환으로 초일류 자족도시 건설”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장, 무소속 군수 출마 선언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장이 13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 전 본부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중진당 재심위원회의 최고위원회의 후보 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당이 자신을 배제했다”며 “그동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한 길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선민후당의 자세로 오직 완주군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국 전 본부장은 “지금 완주에는 강한 추진력과 혁신 책임감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며 “13개 읍·면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유기적 연대 경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민 탄소연금 △군민 수소포인트 △농업 특화 AI 선도 도시 조성 △수소 특화 선도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영석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완주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윤희태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O만호기자·완주=연재복기자

“대한방직 개발·피지컬AI 산업 육성 앞장”

천서영 전주시의원, 국힘 소속 도의원 출마 선언

국민의원 비례대표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효자5동을 기반으로 한 제7선거구 전북자치도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서영 의원은 “오랜 시간 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머물러 있는 대한방직 부지는 더 이상 방치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 민간기업,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등 14개 시·군과 전북도가 협력하는 피

/O만호기자

민주 전북 후보자들, 새만금 현장에서 ‘전북 발전 원팀’

이원택 도지사 후보·김의겸·박지원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한병도 원내대표와 전북·새만금 사업 지원 현장 간담회
재생에너지·RE100·현대차 9조 투자 등 미래 청사진 제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민주당 후보들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다”며 전북 발전과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민주당 원팀 체제를 강조하고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사업 지원 현장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 미래 발전 전략과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성공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 원팀’ 행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의겸·박지원 등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만금은 단

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민주당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성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택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힘을 모아 전북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당·정·청 협력 체계를 통해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 성공은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와 함께 완성될 수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과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전북의 이재명 다운 특색으로 전북 경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하는 전북의 위대한 도약은 민주당 원팀이 완성하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원택·김의겸·박지원 예비후보가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사업 지원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김의겸·박지원 예비후보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은 이제 글로벌 첨단산업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입법 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규제 없는 혁신의 공간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북 경제의 심장은 새만금”이라며 “중앙 정치권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새만금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확실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및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 △현대차 9조원 투자 현실화

및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RE100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 △그린수소 혁신밸리 조성 △K-푸드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새만금 국제공항 및 주요 SOC 사업의 대통령 임기 내 완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새만금 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끌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및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 △현대차 9조원 투자 현실화

및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RE100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 △그린수소 혁신밸리 조성 △K-푸드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새만금 국제공항 및 주요 SOC 사업의 대통령 임기 내 완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새만금 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끌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및 전력 계통망 신속 구축 △현대차 9조원 투자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김제·부안·군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오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 박지원 후보 측은 13일 오후 5월 17일 오후 1시 김제시 요촌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소식은 김제시 요촌동 159-2 2층

17일 민주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롯데리아 김제점 인근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해 박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박 후보는 “김제·부안·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발전의 비전을 만들어가

다”며 “개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힘찬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등 주요 정치인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유능한 젊은 일꾼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과 민생 중심 정치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박지원 후보 측은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으며,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하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했다.

/O만호기자